

# 한반도 동향

2019년 6월

## I. 주요 정세

###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 자** 김혜민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서은성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 I

## 주요 정세

### 6.1.(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이 5월에 두 차례 발사한 발사체는 모두 단거리 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많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상그릴라 대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국방교류 정상화 방안 논의(상그릴라 대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웨이펑허 중국 국무원원 겸 국방부장(장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 논의(상그릴라 대화)

정 장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점과 사드 운용 방식 설명  
패트릭 새너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우리는 ‘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 “북한은 여전히 극도의 위협으로 계속 경계해야 한다”(상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

박원순 서울시장,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100만 달러를 유엔 세계식량기구(WFP)에 기부하겠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팟캐스트 방송)

### 6.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패트릭 새너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협의 및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협력” (상그릴라 대화)

웨이펑허 중국 국무원원 겸 국방부장(장관), “우리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합리적 우려에 응답하기를 희망”, “적절한 시점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가역적 조항을 기동해야 한다”(상그릴라 대화)

### 6.3.(월)

문재인 대통령, 패트릭 샐너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접견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제재 완화’ 원칙 재확인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빠르게 낙하 중,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 가동 필요” (간부회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난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TV 인터뷰)

### 6.4.(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 경험이 있고, 현재도 그게 가능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이 재개되는 것”, “한미 사이에 ‘선 비핵화가 아닌 동시 병행적 해결’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확산 중”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행정안전부,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조성계획 발표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구간 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

### 6.5.(수)

통일부, 유엔 세계식량기구(WFP)·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심의·의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문재인 정부 첫 대북지원 시작으로 800만 달러(약 94억 원)를 국제기구에 전달 예정,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의 모자보건 및 영양 사업에 배정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적절한 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아일랜드)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에 북한에 밀 4,000t 지원 사실 게재

문화재청, 강원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문화재 등록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직후 남측 지역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감시초소

### 6.7.(금)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한일 양자 간 문제가 한미일 3국이 북한, 그리고 지역적·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한 전략적 책무에 집중하는 것을 흐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반도 안보환경 평가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

6.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지금 상황에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KBS TV 프로그램)

국방부, “지난 5일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유엔군 추정 유해 첫 발굴” 발표

6.10.(월)

한국-핀란드 정상회담 개최(핀란드)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 남북미 3국 간 반관반민 대화, 남북미중 4국 간 반관반민 대화의 장을 핀란드에서 마련해서 국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도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한반도 안정이 곧 세계 평화, 뭐든지 돕겠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G20 이후 방한” 발표(브리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동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등 논의 예정  
미국 의회조사국(CRS), “북한의 5월 미사일 도발은 고체연료 엔진 및 유도장치 개발 목적”, “미사일은 KN-23 탄도미사일”(‘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

6.11.(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친서에 대해 고맙게 생각”  
(기자 인터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첫 서신 외교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하에서 핵 군축은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핵 군축·핵확산 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미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가능, 열쇠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쥐고 있다”(‘최고재무책임자 네트워크’ 행사)

6.12.(수)

문재인 대통령, 오슬로포럼 ‘국민을 위한 평화’ 제목의 기조연설 및 일문일답(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 나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라고 부르고 싶다”,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한다”,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기조연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 남북정상회담 시기는 김정은 국무 위원장 선택에 달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 알고 있었고, 대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나는 서두를 게 없다”(미국-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6.12.(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故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전과 조화 전달(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6.13.(목)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흥미로운 대목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핵심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6월 중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하지 않다”(한국-노르웨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6.14.(금)

문재인 대통령,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도 함께 해 나갈 계획”(스웨덴 의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 “누구나 제재를 어기려 한다. 북한이 지난 5월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TV 뉴스 인터뷰)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이 아니었다고 거듭 언급

6.15.(토)

문재인 대통령, “실무협상을 토대로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노이 회담처럼 합의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한국-스웨덴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 외교적 방안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아시아 상호협력 · 신뢰 조치 회의’ 정상회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6.17.(월)

이낙연 국무총리, “남북 및 북미 간 물밑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머지않아 수면 위의 대화도 재개될 것”(국가조찬기도회 축사)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시진핑 주석, 오는 20일~21일 전격 방북” 발표 시 주석 취임 이후 첫 방북이자, 최고지도자로서는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의 방북

송타오 대외연락부장,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 교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 추진,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6.18.(화)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다소 희망적 기운 보여”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6.19.(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t 대북지원(기자회견) 2010년 북한 수해 당시 국내산 쌀 5,000t 지원한 뒤 9년 만에 처음

시진핑 주석,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제목으로 북한 노동신문 기고

중국 주석 첫 노동신문 기고,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 및 지역 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 지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북한의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 제재 발표

6.20.(목)

시진핑 주석 방북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평양)

북한, 최대급 국민 예우(25만 명 앞 카퍼레이드 진행, 금수산궁전 광장에서 국민 환영식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내심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 “중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시진핑 주석,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도록 지원할 것”

6.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친서 받아 “흥미로운 내용 만족, 심중히 생각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미 실무협상 당장 시작할 준비되어 있다”

6.24.(월)

문재인 대통령, 6.25 전쟁 참전 유공자-유가족 청와대 초청 오찬 참석

“6.25, 북한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 정체성 지켜낸 전쟁”, “전쟁 없는 한반도로 참전 용사에 보답”

6.25.(화)

국가정보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지위가 최룡해급으로 격상,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위상은 격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트럼프 대통령, “어느 시점에 북한과 3차 정상회담 할 것”

6.26.(수)

문재인 대통령,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 북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평가 가능”, “비핵화 협상, 북미 대화 재개 시기 무르익었다. 북미 간 3차 정상회담 관련 대화 이뤄지고 있어” (국내외 주요 통신사 7곳과 공동 서면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 않을 것”,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6.27.(목)

**2박 3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담 개막(일본 오사카)**

**한중 정상회담 개최(일본 오사카)**

문재인 대통령,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게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희망”, “사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해서 풀어야”, 시진핑 주석, “한중 협력이 외부 압력을 받아선 안 돼”, “북한, 비핵화 의지 변함없고 대화로 핵문제 풀고 싶어한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지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 조율 예정

6.28.(금)

**한러 정상회담 개최(일본 오사카)**

북한 비핵화 해법 논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회동(서울)**

비건 대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6.30.(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서울)**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합의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피스메이커, 대화 외의 다른 길은 없다”, “영변핵 폐기는 비핵화 입구”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사이 유지 중, 대북제재 해제는 서두르지 않을 것”, “한미동맹은 전례 없이 굳건”

**남북미 판문점 회동**

북미 정상,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악수 후 함께 북측으로 월경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땅 밟아

남북미, 정전협정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악수

북미,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단독회담 53분 동안 진행

트럼프 대통령, “적절한 때 백악관 와 달라”, “실무협상에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나설 것”,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포괄적인 딜을 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 “나와 트럼프 사이의 훌륭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전격적 상봉 불가능”,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판문점에서 오랜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하는 것 자체로 달라진 오늘을 표현”

## II

## 주요국 연구동향

### 1. 한국

#### ■ 하노이에서 판문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평가와 전망

(조한범, 『온라인시리즈』, 2019-12호, 통일연구원, 2019.07.01.)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4월 북러정상회담, 5월 북한 군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발사 참관, 자강도 시찰, 6월 대미친서 전달, 북중정상회담 등임.
  - 전반적으로 기존 비핵화 협상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격적인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준비되지 않은 짧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이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관건은 향후 전개될 실무협상임.
  - 이를 위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비핵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각각 경제적 상응조치와 정치적 상응 조치를 분담하는 조합은 초기단계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원문 <http://www.kinu.or.kr/www/jsp/prg/api/di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21892>

####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디지털 기기 이용과 사회적 지지의 형성- 디지털 기기의 융합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세현, 『문화와 융합』, 제41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9.-6.30.)

- 남한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이용이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진행
  - 디지털 기기는 개인 간 사회적 교류의 형태와 범위를 급격하게 확장시키면서 사회적 지지 형성에 기여
  -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디지털 기기의 특성은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됨.

-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
  - 인터넷 이용 경험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 디지털 기기를 ‘관계 형성 및 유지’와 ‘정보 생산 및 공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나, ‘사회 참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디지털 기기 이용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한주민 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더욱 크게 나타남.

### ■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효주·김정근,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9.06.30.)

-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는 남한 거주 중장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저해경험을 이해하고자 40대-60대 북한이탈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함.
-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부재 및 브로커비용과 대북송금, 과도한 치료비,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무리한 지출 등 기존 남한거주민들에 비해 노후자금 마련을 저해하는 추가적 지출을 하고 있음.
  - 각종 차별로 인한 취직의 어려움, 짧은 일자리 사업기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생활고,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두려움 등 환경적 요인 작용
  -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치,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문제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이들이 지닌 근본적인 이질성과 특수성에 따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 북한의 2019년도 전반기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

(이중구, 『동북아안보정세분석』, No.499, 한국국방연구원, 2019.06.11.)

- 2019년 상반기 아태/동북아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북한은 강대국 간의 마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동시에 강대국 간의 갈등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일접근에 대해서 경계심을 표현
  - 북한은 냉전기 중소분쟁 등 강대국 간의 경쟁을 자국의 이익확대를 위해 활용해본 경험이 있는 체제이나, 북한의 비핵화는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므로 북한이 대강대국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낼 가능성은

적음. 이에 한국은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의를 모색함으로써 북한에게 비핵화 결단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2019년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은 내부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적 협력과 투자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요구가 거부된 데 따르는 비판적 입장으로 요약 가능
  - 당장의 협상 재개와 관련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변 플러스 알파이든 어떠한 결과로든 비핵화 합의는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남북관계를 포함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경협 개시 대비할 필요는 있음.
- 2019년도 상반기 북한 군사/국방정책을 보면,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전투준비태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북군사합의서의 틀을 지키며 과민대응은 자제해야 함.

※ 원문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77&depth=2>

## ■ 북한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 몰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임수호·김상걸, 『이슈브리프』, 제12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06.07.)

-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상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남포항에서 무연탄을 싣고 모처로 향해하던 중 2018년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된 후 미국에 인도되어 같은 해 7월 법적으로 압류됨.
  -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미국 국내법상 대북 수출제재, 수입제재, 그리고 금융제재 위반이라 주장
- 과거에도 북한 선박이 억류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압류·몰수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특히 미국에 의해 직접 압류·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미국 국내법으로 유엔제재의 집행력을 뒷받침한 사례가 되었음.
-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제재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재의 '이행'에 해당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제재의 '새로운'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이번 사건을 정세 돌파용, 즉 대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미 모두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화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원문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3.	'김혁철 처형설'과 '김영철 노역설'에 대한 일곱 가지 의혹	정성장	세종연구소	<a href="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1#none">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1#none</a>
06.18.	시진핑 방북의 배경과 관전 포인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 href="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a>
06.19.	문재인대통령, 오슬로, 스톡홀름 연설의 의미와 과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 href="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a>
06.23.	시진핑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	이상근,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a href="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a>
06.24.	북-중 만남, 동북아 격동의 새 시작인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a href="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c%a4%91-%eb%a7%8c%eb%82%a8-%eb%8f%99%eb%b6%81%ec%95%84-%ea%b2%a9%eb%8f%99%ec%9d%98-%ec%83%88-%ec%8b%9c%ec%9e%91%ec%9d%b8%ea%b0%80/">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c%a4%91-%eb%a7%8c%eb%82%a8-%eb%8f%99%eb%b6%81%ec%95%84-%ea%b2%a9%eb%8f%99%ec%9d%98-%ec%83%88-%ec%8b%9c%ec%9e%91%ec%9d%b8%ea%b0%80/</a>
06.26.	동북아 외교 매트릭스와 한국의 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a href="http://www.asaninst.org/contents/%eb%8f%99%eb%b6%81%ec%95%84-%ec%99%b8%ea%b5%90-%eb%a7%a4%ed%8a%b8%eb%a6%ad%ec%8a%a4%ec%99%80-%ed%95%9c%ea%b5%ad%ec%9d%98-%ea%b8%b8/">http://www.asaninst.org/contents/%eb%8f%99%eb%b6%81%ec%95%84-%ec%99%b8%ea%b5%90-%eb%a7%a4%ed%8a%b8%eb%a6%ad%ec%8a%a4%ec%99%80-%ed%95%9c%ea%b5%ad%ec%9d%98-%ea%b8%b8/</a>
06.26.	시진핑 주석 방북과 북중정상회담 평가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a href="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List.do?menuCl=P07">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List.do?menuCl=P07</a>
06.28.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1권 6호, pp. 3~30.
06.30.	18차 상그릴라 대화와 북한 비핵화 전망	고명현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a href="https://www.kndu.ac.kr/rinsa/bbs/data/list.do?menu_idx=189">https://www.kndu.ac.kr/rinsa/bbs/data/list.do?menu_idx=189</a>
06.30.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고유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5~32.
06.30.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김석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33~78.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30.	핵연구 관점에서 본 북한핵과 비핵화	김성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79~118.
06.30.	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김일성지도체제의 맹아	김선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119~156.
06.30.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김태경, 이우영, 구갑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157~191.
06.30.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최봉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193~226.
06.30.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이철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227~259.
06.30.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공동의 미래로서의 한반도 통일	김지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평화』, 제11권 1호, pp. 305~348.
06.30.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김지영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제26권 2호, pp. 127~170.
06.30.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정경화, 권순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제54권 2호, pp. 115~151.
06.30.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조영임, 안경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2호, pp. 149~182.
06.30.	김일성-김정일의 정통성 유지와 이미지 차별화 전략: 북한 지도자의 시각정치적 도상을 중심으로	박상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5권 1호, pp. 4~36.
06.30.	분단, 탈분단 그리고 통일의 상상력 넓히기	정영철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5권 1호, pp. 37~64.
06.30.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에 대한 비교 연구: 상호 간 및 내/외집단에 대해 가지는 인식/감정/태도를 중심으로	양문수, 이우영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5권 1호, pp. 65~103.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30.	남북 결제시스템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블록체인 시스템 적용을 중심으로	김성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5권 1호, pp. 105~131.
06.30.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도경옥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pp. 27~50.
06.30.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	김보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pp. 183~208.

## 2. 미국

### ■ Trump-Kim DMZ Meeting at the DMZ: Is Kim Jong-un Foil, Friend, or Foe?

(2019.07.01., Scott A. Snyder, *Forbes*)

- 친서 교환으로 인한 북미 정상 간 관계는 유지되었으나, 실무진 차원에서는 교착 상태였음.
  - DMZ에서 북미 정상 간 만남은 평화와 비핵화 협상에 필요한 실무 차원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부 관계자들 간의 실무 접촉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매우 중요
  -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며, 정상들만의 노력만으로는 협상할 수 없음.
  - 실무 차원의 협상 재개는 집중적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 될 것
- 하노이 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양측 간 격차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함.
  -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이 회피한 세부 협상을 시작하는데 성공한다면 DMZ에서의 두 정상 간 만남은 의미가 있음.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19/06/30/a-trump-kim-meeting-at-the-dmz-is-kim-jong-un-foil-friend-or-foe/#542241833424>

### ■ The Real Origins of the U.S.-China Cold War

(2019.06.02., Charles Edel and Hal Brands, *Foreign Policy*)

-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고려사항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시민들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을 다룰 방법을 모색하는 것
  - 중국과 미국이 새로운 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다년간의 투쟁임.
- 미중 대립이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의 부산물이나 경쟁적인 국제체제에서 강대국 사이 불가피한 긴장감이라면, 미국은 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보다 집중적이고 조율된 대응전략을 채택해야 함.
  - 미국의 조치가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면 미국은 중국의 반감을 살만한 행동을 피해야 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중국을 충돌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면 미국은 그를 기다려 주어야 함.

- 오늘날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의 동시 상승과 민주국가의 후퇴
  - 서구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아시아에서 민주적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냉전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억압적인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몇 국가들의 인식을 비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
-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좋은 도덕적,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데 국제적인 이념의 풍토가 미국의 영향력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학대, 인권 유린 등 가치에 대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중국을 향한 미국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전적으로 지속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체 정부(whole of government) 접근법'이 아닌, '사회 전체(whole of society)의 접근법'임.
- 중국의 규모는 중국이 제시하는 문제들이 곧 사라질 것들이 아님을 의미
  -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까지 부재했던 냉철하고 분명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원문 <https://foreignpolicy.com/2019/06/02/the-real-origins-of-the-u-s-china-cold-war-big-think-communism/>

## ■ Russia, China Are Key and Close Partners

(2019.06.05., Dmitri Treni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hina Daily*))

- 중러 관계가 정상화되고 30년 만에 성사된 시진핑 총리의 러시아 방문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생산적인 외교정책으로 평가
  - 2018년도까지 중러 무역은 1천 억 달러를 넘었으며, 민간 시민의 국경 방문은 수 백 만으로 측정되는 등 지난 5년간 중러 관계는 협상(entente) 단계에 도달
  - 중러 관계의 본질은 '양국은 다시는 상호 대립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항상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국가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
  -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등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주도

- 중러 간 강력한 연계는 세계 질서 변화(evolution)에 중요한 요소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간 대립을 촉발시켰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경쟁 악화
  -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노력을 계속 함.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 해소의 주요 원인은 아니나, 확실히 기여한 점이 있음.
- 중러 간 경제적 역동성(economic dynamism)은 여전히 긍정적
  -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석유수출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천연가스 수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풍부한 에너지 보유량을 확보하게 됨.
  - 러시아는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를 자체 경제 통합 프로젝트인 유라시아 경제 연합(Eurasian Economic Union)과 조율하겠다고 선언하고 “Grand Eurasian Partnership”에 대한 자체 비전을 제시
  - 또한 러시아는 중국에게 정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의 주요 군사 훈련에 중국인민해방군을 초대할 예정
- 올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러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움.
  - 강대국들은 그들이 이끌거나 자제하며, 정세에 편승하지 않음.
  - 양자관계에 있어서 강대국들은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익이나 상황에 따라 서로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추종자가 될 만큼 가깝지는 않음.

※ 원문 <https://carnegie.ru/2019/06/05/russia-china-are-key-and-close-partners-pub-79262>

## ■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U.S. Policy Implications

(2019.06.14., Elizabeth Wishnick, *Brief for Congressional Outreach*, NBR)

- 2017년 미국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 영향력 및 안보에 공동 도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1950년대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차이는 오늘날 미국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도전이 두드러짐.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북한에 대한 중러 협력 동향을 확실하게 염두에 두어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음.
  -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패권에 중요한 역할
  -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극동 지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경제 발전 목표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서 매우 중요
- 북핵 위기는 중국과 러시아 간 유례없는 협력
  - 양국 모두 북핵 해법에서 이중동결(double freeze)을 지지
  - 또한 지역 안정에 역효과이며 그들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드(THAAD) 배치에도 반대 표명
  - 러시아와 중국은 둘 다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비난하였으나, 제재를 다르게 적용(중국은 한국의 관광사업을 급격하게 제한하고 투자를 축소시킨 반면, 러시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양국 모두 UN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투표를 했으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일부 대북 제재 조치가 희석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위기 해법으로 공동 로드맵에 대부분 동의
  - 중러 간 합의는 중러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공통 규범과 원칙을 반영
  - 이 공통적 접근방식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 군사 훈련가 연계되어 한미 동맹 문제를 더욱 악화
- 북핵 위기에 대한 중러 협력관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 의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을 구상해야 함.
  - 감독(oversight): 미 의회는 미 행정부가 중러 협력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감독권을 행사하고, 또한 아시아에서의 민간 부문 주도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내 중국 및 러시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 행정부가 빌드 법(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 Act)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음.
  - 예산(세출) 지출(appropriations): 최근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ARIA)의 예산 지출 승인. 이 법안은 미국 예산이 의회가 추구하는 전략적 우선순위(한반도 안정화 등)를 보장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비전에 도움
  - 대중 지지(public interface):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미국의 이익에 증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미 의회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고, 미국의 아시아  
 관여(engagement)에 대한 미국 국내 지지를 얻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음.  
 CPTPP는 양자 회담 없이 일본과 같은 회원국들과의 많은 무역 분쟁을 잠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국 및 러시아 주도의 무역 협정에 대한  
 대안 제공 가능

※ 원문 <https://www.nbr.org/publication/the-sino-russian-partnership-and-the-north-korean-nuclear-crisis/>

■ **The Need for a New U.S. Information Strategy for North Korea**  
 (2019.06.19., Nat Kretchun, *Special Report No. 451*, USIP)

-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주민의 사회적 고립을 종식시키고 장기적인 복지  
 (long-term welfare)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보 전략 필요
  -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정보를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현대적인 형태의  
 검열과 감시를 하고 있음.
  - 2011년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이래 북한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야심적인(ambitious) 전략을 제정
  - 가장 중요한 발전은 장치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권의 통제로 인해 (아마도) 가장 완성도 있는 국가 디지털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이 탄생
  - 이 전략에서 단 하나의 문제점은 주민들이 국가 통제를 넘어서 직접인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비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협력  
 (coordination)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 정보 전략은 미국 전략의 효과적인 구성 요소일 수 있으나, 현재의 노력은 부족
  - 사실적인 외부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보급 전략이 기술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
  - 효과적인 전략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주민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미국 정책은 변화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한 변화 이론에 근거  
 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활용 및 촉진시켜야 함.
  - 북한의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검열 및 감시 요소에 대응하여 통신채널을 개설  
 하고 국가 내 정보 유통을 확대해야 함.

※ 원문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06/need-new-us-information-strategy-north-korea>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3.	Trump Undercuts "Maximum Pressure" Strategy on North Korea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 <i>The Hill</i> )	<a href="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trump-undercuts-maximum-pressure-strategy-north-korea">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trump-undercuts-maximum-pressure-strategy-north-korea</a>
06.04.	Resolving the US-China Trade Impasse	Yukon Huang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i>East Asia Forum</i> )	<a href="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6/04/resolving-us-china-trade-impasse-pub-79259">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6/04/resolving-us-china-trade-impasse-pub-79259</a>
06.05.	Downplaying North Korea's Missile Tests Carries Political and Strategic Risks	Naoko Aoki	RAND Corporation ( <i>East Asia Forum</i> )	<a href="https://www.rand.org/blog/2019/06/downplaying-north-koreas-missile-tests-carries-political.html">https://www.rand.org/blog/2019/06/downplaying-north-koreas-missile-tests-carries-political.html</a>
06.05.	In Global Hotspots, China and Russia are Stepping Up Coordination	Jacob Stokes	USIP	<a href="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06/global-hotspots-china-and-russia-are-stepping-coordination">https://www.usip.org/publications/2019/06/global-hotspots-china-and-russia-are-stepping-coordination</a>
06.06.	Beating the Americans at Their Own Game: An Offset Strateg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obert O. Work and Greg Grant	CNAS	<a href="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beatng-the-americans-at-their-own-game">https://www.cnas.org/publications/reports/beatng-the-americans-at-their-own-game</a>
06.06.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Mary Beth D. Nikitin	CRS	<a href="https://fas.org/sgp/crs/nuke/IF10472.pdf">https://fas.org/sgp/crs/nuke/IF10472.pdf</a>
06.06.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Dianne E. Rennack	CRS	<a href="https://fas.org/sgp/crs/row/R41438.pdf">https://fas.org/sgp/crs/row/R41438.pdf</a>
06.10.	Defense in Support of Diplomacy: Re-designing the ROK-U.S. Deterrence Posture	S. Paul Choi	CFR	<a href="https://www.cfr.org/blog/defense-support-diplomacy-re-designing-rok-us-deterrence-posture">https://www.cfr.org/blog/defense-support-diplomacy-re-designing-rok-us-deterrence-posture</a>
06.10.	Adapting to a Nuclear North Korea Is Better than Swapping Away U.S. Regional Assets	Robert E. Kelly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adapting-nuclear-north-korea-better-swapping-away-us-regional-assets-62082">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adapting-nuclear-north-korea-better-swapping-away-us-regional-assets-62082</a>
06.12.	The Trilateralism Dilemma	John K. Warden	CFR	<a href="https://www.cfr.org/blog/trilateralism-dilemma">https://www.cfr.org/blog/trilateralism-dilemma</a>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12.	Why the US must conclude a proper treaty with North Korea	Henri Feron	<i>The Hill</i>	<a href="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447918-why-the-us-must-conclude-a-proper-treaty-with-north-korea">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447918-why-the-us-must-conclude-a-proper-treaty-with-north-korea</a>
06.13.	Trump's First Trade Deal: The Slightly Revis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Simon Lester, Inu Manak, and Kyoung-hwa Kim	Cato Institute	<a href="https://www.cato.org/publications/free-trade-bulletin/trumps-first-trade-deal-slightly-revised-korea-us-free-trade">https://www.cato.org/publications/free-trade-bulletin/trumps-first-trade-deal-slightly-revised-korea-us-free-trade</a>
06.15.	America Needs a Real China Strategy	Daniel Wagner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america-needs-real-china-strategy-62567">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america-needs-real-china-strategy-62567</a>
06.17.	U.S.-North Korea Summit Proves to Be All Talk, No Seoul	Daniel R. DePetris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north-korea-summit-proves-be-all-talk-no-seoul-63082">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north-korea-summit-proves-be-all-talk-no-seoul-63082</a>
06.17.	Trump Has Already Won the 'Trade War'	Gordon G. Chang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rump-has-already-won-%E2%80%99trade-war%E2%80%99-63097">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rump-has-already-won-%E2%80%99trade-war%E2%80%99-63097</a>
06.17.	Flash Analysi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Visit to North Korea	Jean H. Lee, Abraham Denmark, and Katie Stallard-Blanchette	Wilson Center	<a href="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flash-analysis-chinese-president-xi-jinpings-visit-to-north-korea">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flash-analysis-chinese-president-xi-jinpings-visit-to-north-korea</a>
06.18.	The Dire Necessity of Strategic Concessions and Relationship Building in U.S.-North Korea Relations	Adriana Nazarko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ire-necessity-strategic-concessions-and-relationship-building-us-north-korea">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ire-necessity-strategic-concessions-and-relationship-building-us-north-korea</a>
06.18.	Can Xi's Visit to North Korea Facilitate US-China Trade Talks?	Ashish Kumar Sen	The Atlantic Council	<a href="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an-xi-s-visit-to-north-korea-facilitate-us-china-trade-talks">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an-xi-s-visit-to-north-korea-facilitate-us-china-trade-talks</a>
06.18.	Why The Crisis In Xinjiang Is About More Than Human Rights	Olivia Enos	<i>The Forbes</i>	<a href="https://www.forbes.com/sites/oliviarenos/2019/06/18/why-the-crisis-in-xinjiang-is-about-more-than-human-rights/#dc7ac536c77f">https://www.forbes.com/sites/oliviarenos/2019/06/18/why-the-crisis-in-xinjiang-is-about-more-than-human-rights/#dc7ac536c77f</a>
06.19.	North Korea Talks in 'Holding Pattern' Over Key Word, U.S. Envoy Says	Elias Groll	<i>Foreign Policy</i>	<a href="https://foreignpolicy.com/2019/06/19/north-korea-talks-in-holding-pattern-amid-dispute-on-key-phrase-us-envoy-says-biegun/">https://foreignpolicy.com/2019/06/19/north-korea-talks-in-holding-pattern-amid-dispute-on-key-phrase-us-envoy-says-biegun/</a>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19.	Where Will It End? The US-China Trade War and the Threat to the Global Economy	Kevin Rudd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Kennedy School	<a href="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where-will-it-end-us-china-trade-war-and-threat-global-economy">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where-will-it-end-us-china-trade-war-and-threat-global-economy</a>
06.20.	Yongbyon Declassified Part III: Significant Construction of Facilities at Nascent Yongbyon Nuclear Site by 1966	Joseph Bermudez	CSIS Beyond Parallel	<a href="https://beyondparallel.csis.org/yongbyon-declassified-part-iii-significant-construction-of-facilities-at-nascent-yongbyon-nuclear-site-by-1966/">https://beyondparallel.csis.org/yongbyon-declassified-part-iii-significant-construction-of-facilities-at-nascent-yongbyon-nuclear-site-by-1966/</a>
06.20.	Commemorating the 2017 Hwasong-12 IRBM Launch?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a href="https://beyondparallel.csis.org/commemorating-the-2017-hwasong-12-irbm-launch/">https://beyondparallel.csis.org/commemorating-the-2017-hwasong-12-irbm-launch/</a>
06.20.	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U.S. Department of State	<a href="https://www.state.gov/reports/2019-trafficking-in-persons-report/#nav__primary-nav">https://www.state.gov/reports/2019-trafficking-in-persons-report/#nav__primary-nav</a>
06.20.	The Implications of China Developing a World-Class Military: First and Foremost a Regional Challenge	Elbridge Colby	CNAS	<a href="https://www.cnas.org/publications/congressional-testimony/the-implications-of-china-developing-a-world-class-military-first-and-foremost-a-regional-challenge">https://www.cnas.org/publications/congressional-testimony/the-implications-of-china-developing-a-world-class-military-first-and-foremost-a-regional-challenge</a>
06.20.	Nuclear North Korea Wants Less Talk, More Action	Doug Bandow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uclear-north-korea-wants-less-talk-more-action-63462">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uclear-north-korea-wants-less-talk-more-action-63462</a>
06.20.	Xi Meets Kim in North Korea	Audrey Wilson	<i>Foreign Policy</i>	<a href="https://foreignpolicy.com/2019/06/20/xi-meets-kim-jong-un-jinping-china-north-korea-trump-nuclear-sanctions-hong-kong-trudeau/">https://foreignpolicy.com/2019/06/20/xi-meets-kim-jong-un-jinping-china-north-korea-trump-nuclear-sanctions-hong-kong-trudeau/</a>
06.21.	The Choice for Southeast Asia Is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onnie S. Glaser	CSIS ( <i>The Straits Times</i> )	<a href="https://www.csis.org/analysis/choice-southeast-asia-isnt-between-united-states-and-china">https://www.csis.org/analysis/choice-southeast-asia-isnt-between-united-states-and-china</a>
06.22.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After Hanoi	Daminov Ildar	<i>The Diplomat</i>	<a href="https://thediplomat.com/2019/06/north-koreas-negotiating-strategy-after-hanoi/">https://thediplomat.com/2019/06/north-koreas-negotiating-strategy-after-hanoi/</a>
06.22.	Xi's North Korea Visit: All Style, No Substance?	Shannon Tiezzi	<i>The Diplomat</i>	<a href="https://thediplomat.com/2019/06/xis-north-korea-visit-all-style-no-substance/">https://thediplomat.com/2019/06/xis-north-korea-visit-all-style-no-substance/</a>
06.24.	Mr. Xi goes to Pyongyang	Jung H. Pak	The Brookings Institution	<a href="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6/24/mr-xi-goes-to-pyongyang/">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6/24/mr-xi-goes-to-pyongyang/</a>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25.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Eleanor Albert	CFR	<a href="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north-korea-relationship">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north-korea-relationship</a>
06.25.	Navigating Rocky Japan-South Korea Relations	James L. Schoff and Paul K. Le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	<a href="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6/25/navigating-rocky-japan-south-korea-relations-pub-79367">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6/25/navigating-rocky-japan-south-korea-relations-pub-79367</a>
06.25.	Red Tide: China-North Korea Naval Cooperation	Adam Cathcart	<i>The Diplomat</i>	<a href="https://thediplomat.com/2019/06/red-tide-china-north-korea-naval-cooperation/">https://thediplomat.com/2019/06/red-tide-china-north-korea-naval-cooperation/</a>
06.25.	Trump's Trade War Is the Wrong Way to Compete With China	Tom Donilon	<i>Foreign Affairs</i>	<a href="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6-25/trumps-trade-war-wrong-way-compete-china">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6-25/trumps-trade-war-wrong-way-compete-china</a>
06.27.	How China Really Sees the Trade War	Andrew J. Nathan	<i>Foreign Affairs</i>	<a href="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6-27/how-china-really-sees-trade-war">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9-06-27/how-china-really-sees-trade-war</a>
06.28.	At the G20, Trump Should Be Wary of China's North Korean Designs	Bruce Klingner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g20-trump-should-be-wary-chinas-north-korean-designs-64711">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g20-trump-should-be-wary-chinas-north-korean-designs-64711</a>
06.30.	Trump Takes Risky Gamble Meeting with Kim and Walking Into North Korea	William H. Tobey and Judith Miller	<i>Fox News</i>	<a href="https://www.foxnews.com/opinion/judith-miller-and-william-tobey-trump-takes-risky-gamble-meeting-with-kim-and-walking-into-north-korea">https://www.foxnews.com/opinion/judith-miller-and-william-tobey-trump-takes-risky-gamble-meeting-with-kim-and-walking-into-north-korea</a>
06.30.	Trump Just Gave North Korea More Than It Ever Dreamed of	Michael Hirsh	<i>Foreign Policy</i>	<a href="https://foreignpolicy.com/2019/06/30/trump-has-already-given-north-korea-more-than-it-dreamed-of/">https://foreignpolicy.com/2019/06/30/trump-has-already-given-north-korea-more-than-it-dreamed-of/</a>
06.30.	One Small Step for a President, One Giant Leap for Pyongyang	Andray Abrahamian	<i>Foreign Policy</i>	<a href="https://foreignpolicy.com/2019/06/30/one-small-step-for-a-president-one-giant-leap-for-pyongyang/">https://foreignpolicy.com/2019/06/30/one-small-step-for-a-president-one-giant-leap-for-pyongyang/</a>
06.30.	The Case for Optimism After the Trump-Kim Handshake Summit	Eric Gomez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optimism-after-trump-kim-handshake-summit-65016">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optimism-after-trump-kim-handshake-summit-65016</a>
06.30.	Trump's Visit to North Korea is an Alarming Message to China	Gordon G. Chang	<i>The National Interest</i>	<a href="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rump%E2%80%99s-visit-north-korea-alarming-message-china-65091">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trump%E2%80%99s-visit-north-korea-alarming-message-china-65091</a>

### 3. 중국

#### ■ 새 역사를 연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우연인가, 필연인가.

(리둔치우, 환구시보 논평, 2019.07.01.)

(李敦球, 朝美首脑在板门店开创历史: 偶然还是必然?, 环球时报 评论, 2019.07.01.)

-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성사
  - ‘의외’ 또는 ‘우연’으로 보이는 이 만남은 정말 돌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고 특별한 설계인지에 대한 궁금증 유발
  - 6월 들어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이미 무르익은 양국의 대화 분위기를 잘 활용한 것
  - 주목할 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직전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미국 내 강경 매파의 견제와 제약을 차단했다는 것
  - 경영인 출신의 트럼프가 외교적 관례를 깨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한 것
- 북미 양국 정상의 이번 만남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의 개인적 관계든, 양국의 국가적 관계든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했고,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반복적 경색을 방지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 하에 실무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백악관 방문도 제안
- 한반도는 단기간 내에 경제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와 다른 화법을 구사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
  - 관념과 입장의 전환은 문제해결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제재가 일정 정도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반도에서 냉전적 의식이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으로 치달을 만큼 위험한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
  - 현재 한반도는 역진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가며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와 안보 체제의 준비조건을 형성하고 있음.

※ 원문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9-07/15073765.html](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9-07/15073765.html)

■ 북미 교착국면 지속, 한반도 정세는 원점으로 회귀하나

(리난, WORLD AFFAIRS(世界知识), 2019. No.10)

(李柟, 朝美僵持, 半岛局势随时复归原点, 世界知识, 2019年 第10期)

-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새로운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음.
  - 하노이 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 변화는 발견할 수 없음.
  - 전략적 교착기가 시작되자 한반도 정세의 원점 회귀에 대한 우려 제기
- 북한은 교착국면 장기화에 대비하기 시작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군사·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전형적인 ‘강대강 전술’ 연출
  -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공고화에도 노력
  - 최근 이와 같은 북한의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이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실현하도록 할 수 있는 한편 순식간에 물거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 미국은 제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며 기존 입장 유지
  - 미국은 빅딜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제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 교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은 대화 재개의 동력을 상실하고 다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퇴보
- 그 동안 한반도 정세는 부침을 반복해왔으며 현재의 전략적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과거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
  - 북미 양국이 각자 동맹국이나 우호 국가를 대화과정에 끌어들여 잡음을 조성
  -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의심이 깊어져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
  - 한국이 북미 양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커지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현 시점에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 원문 <http://navi.cnki.net/KNavi/JournalDetail?pcode=CJFD&pykm=SJZS&Year=&Issue=&Entry=>

## ■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왕지스, 베이징국제전략연구원, 2019.06.17.)

(王缉思, 如何判断美国对华政策的转变, 北京大学国际战略研究院, 2019.06.17.)

- 2017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중대한 변화 발생
  -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적국이자 경쟁국으로 상정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인 견제와 압박을 시도하며, 더 이상 중국을 접촉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음.
  - 이는 1970년대 미중 수교 이후 전례 없던 것이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
- 미국 대중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국가 지위와 권력의 갈등: 중국의 국력과 지위 상승은 미국의 패권 구조에 도전이 되고 있음. 중국의 가치관과 제도, 행위와 무관하게 미국은 중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양국은 패권경쟁의 비극을 피하기 어려울 것
  - 제도와 규칙의 갈등: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미국의 눈에 국가 자본주의에 불과. 가치관과 문화, 정치제도 등의 근본적인 차이와 갈등은 양국을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
  - (경제적) 이익의 갈등: 미국은 대중국 통상·무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군수산업의 이익에 이용
  - 미국 국내정치로부터의 갈등: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중국을 극도로 압박함으로써 현 정부의 강령함을 표현하고자 함.
- 양국관계의 변화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관계의 긍정적 요소를 찾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색국면을 방지하는 것
  -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안정적인 대미 정책이며 미국과의 갈등은 중국의 장기적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함.
  - 세계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중 갈등을 세계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에서 중국에 불리한 여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미중수교 이후 40여 년 동안 형성된 대중국 관계의 사회적 기초는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
-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
  - 미국의 대결적 행위와 종종 발생하는 국부적 충돌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대비 필요
  - 다양한 층위와 영역의 소통을 통해 미국 정치에 존재하는 탄성을 활용함으로써 압박의 부분적 완화와 '싸우되 완전히 깨지지 않는' 국면 유지

※ 원문 <http://www.iiss.pku.edu.cn/specialist/science/>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19. No.3	세계 정치 발전의 새로운 추세, 특징, 전망 〈世界政治发展的新趋势、新特点、 新未来〉	탕용성 외 (唐永胜)	아태안보와 해양연구 (亚太安全与 海洋研究)	<a href="http://mall.cnki.net/magazine/magalist/YFZH.htm">http://mall.cnki.net/magazine/magalist/YFZH.htm</a>
2019. No.3	새 시대 미중관계 재건과 전망 〈论新时期中美关系的 重构与前途〉	샤리핑 (夏立平) 동산산 (董珊珊)	국제전망 (国际展望)	<a href="http://www.siis.org.cn/UploadFiles/file/20190515/201903007%20夏立平.pdf">http://www.siis.org.cn/UploadFiles/file/20190515/201903007%20夏立平.pdf</a>
2019. No.4	체제 압박과 위협인지, 미중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体系压力、威胁认知与韩国在中美 之间的战略选择〉	송원썸 (宋文志)	동북아논단 (东北亚论坛)	<a href="http://www.dbyl.cbpt.cnki.net">http://www.dbyl.cbpt.cnki.net</a>
06.22.	시진핑 방북은 새로운 이정표 〈习近平访问朝鲜是新的 里程碑〉	-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a href="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6/15032666.html">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6/15032666.html</a>
06.24.	북중관계 70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하고 오랜 관계 〈中朝关系70年：历久弥坚金不换〉	장쥘롱 (张君荣) 자오쉬저우 (赵徐州)	중국사회과학원 학보 (中国社会 科学报)	<a href="http://www.cssn.cn/gjgxx/201906/t20190624_4922533.shtml">www.cssn.cn/gjgxx/201906/t20190624_4922533.shtml</a>

## 4. 일본

### ■ 총론-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일본외교

(오코노기 마사오, 『불확실성 시대』의 한반도와 일본의 외교·안전보장, 2019.06.17.)  
 (総論－朝鮮半島情勢の不確実性と日本外交) (小此木政夫, 『『不確実性の時代』の朝鮮半島と日本の外交・安全保障』, 2019.06.17.)

- 하노이 정상회담의 좌절
  -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 문서에 서명하지 못한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고집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이라는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임. 결국 싱가포르에서의 대립을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미룬 것이 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어느 시점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 방침을 세웠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움. 분명한 것은 회담 이후 최섉희 외무차관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방식, 즉 ‘미국식 계산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임.
  -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여파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하겠지만 이미 교섭 실패의 사실은 북한 국내에 알려졌음.
  -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신중하게 피하고 있음. 오히려 양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와 신뢰를 강조함.
- 북한 외교의 가능성
  -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주도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었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4회 방문하였음. 즉, ‘3+1’ (북미·남북과 중국)의 과정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임. 하노이 회담의 좌절이 ‘3+1’ 방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1’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일본외교가 움직일 여지가 있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본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북일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함. 부시 정권기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했던 역사적 사례를 떠올리며 한 발언이라고 생각됨.
  -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화과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음. ‘압력’을 선행하여 그것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한 다음 ‘대화’로 이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정권의 ‘최대한의 압력’ 정책과 공통점을 가짐.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

정권에 의한 ‘압력’의 지속을 의미하는 하노이 회담 실패는 아베 총리에게 고이즈미 외교의 역학이 발휘되는 ‘기회’를 제시함.

- 앞으로 일본외교는 ‘3+1’ 방식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아베 총리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스톨덴과 빅딜의 중간에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임. 그것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실시’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북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함. 그리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 혼란에 빠진 한일관계를 수습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www2.jiia.or.jp/pdf/research/H30\\_Korean\\_Peninsula/](http://www2.jiia.or.jp/pdf/research/H30_Korean_Peninsula/)

## ■ 중국이 3단계로 북한 경제를 지원 북중정상회담, 관계 강화를 확인

(한반도 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중국·아시아 워치【한반도 리포트】제2회, 2019.06.24.)

(中国が3段階で北朝鮮經濟を支援 中朝首脳会談、関係強化を確認) (朝鮮半島研究会、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中国・アジアウォッチ【朝鮮半島レポート】第2回, 2019.06.24.)

- 시진핑이 단계적 비핵화를 지지, 제재 완화론도 서포트
  -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함. 2013년 주석 취임 이후 첫 북한 방문이며 그동안 북핵 문제로 악화되었던 북중관계의 정상화를 과시함.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해결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며 “북한이 안보, 발전 면에서 가지는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힘이 닿는 한 지원을 하겠다”고 표명함.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즉 비핵화 단계에 맞춰 안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에 동의한 것임.
  - 중국은 교착 상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를 양성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제재완화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제재완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 중국이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 경제정책과 기술 면에서 노하우 지원
  -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배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사령탑 김재룡 내각총리가 배석했다는 점에서 경제 문제가 정상회담의 중요 안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양자 협의에서 개혁개방의 경험과 경제정책의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왔음. 개혁개방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임.
  - 북중 양국은 국가 규모, 경제단계, 권력 구조도 서로 다르며 북한은 ‘우리식’ 경제 발전을 고집해왔음.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 경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지방, 민생 등에서 협력 확대, 북한 경제의 중국의존도 확대
  - 시진핑 주석은 협력 프로젝트를 제대로 시행하고 우호 왕래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는 교육, 문화, 스포츠, 청년 교류에 이어 관광, 지방, 민생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힘.
  - 이러한 분야는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선이기도 함. 유엔제재가 적용되어도 중국의 많은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함.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음.
  - 북중 무역은 지방 교류와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허가를 했으니 중국의 민간업자들이 북한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 제재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13.2% 감소했지만 북한 무역 전체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4.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김정은 위원장은 무역 다각화를 주장하지만 유엔제재가 유지된 채 북중 무역만 활성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대폭 높아질 것임.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190624.html>

##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12.	(사설) 첫 북미회담으로부터 1년 퇴보해서는 안 된다. < (社説) 初の米朝会談から1年後戻りさせてはいけない >		마이니치 신문 (毎日新聞)	
06.12.	고조되는 '혐한', 한국에 대한 강경론에 존재하는 리스크 < 高まる「嫌韓」、対韓強固論にこれだけのリスク >	야쿠시지 가쓰유키 (薬師寺克行)	동양경제 온라인 (東洋経済オンライン)	<a href="https://toyokeizai.net/articles/-/286090">https://toyokeizai.net/articles/-/286090</a>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6.1.~30.)

일자	대내	대남·대의
6.01.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현지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계트랙터종합공장,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 평남기계종합공장</li> <li>- 강계시와 만포시건설 총계획 검토 및 지도</li> </ul> </li> <li>6.1국제아동절 69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대성산 유희장)</li> <li>장애어린이들의 6.1국제아동절 기념모임(대동강 구역체육관)</li> </ul>	
6.02.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천보화불상 체육경기대회 개막(~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해산체육관</li> <li>- 폐막식: 남포체육관</li> </ul> </li> <li>[김정은 공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당선된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li> </ul> </li> </ul>	
6.03.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공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관람</li> </ul> </li> <li>김재룡(내각 총리) 현지료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신원군 월당협동농장, 하성차바퀴공장, 국가정보화국</li> </ul> </li> <li>세계 금연의 날(5.31) 토론회(인민대학습당)</li> <li>'전국소년과학환상문예작품 및 모형전시회-2019' 개막(~6/7, 과학기술전당)</li> <li>조선소년단 창립(6.6) 73돌 경축행사 참가자(원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양강도, 자강도 등) 평양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성산혁명열사릉·만경대학생소년궁전·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참관(6/8)</li> <li>- 대집단체조·예술공연 '인민의 나라' 관람(6/8, 5월1일경기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북한 노동당 평양시위원회 대표단, 방려 후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능오(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li> </ul> </li> </ul>
6.04.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정은 공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 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과 기념 촬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방북(~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강철식(총련 후쿠오카현 상공회장)</li> </ul> </li> <li>[중국] 북한 중앙검찰소대표단 방중(~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명길(중앙검찰소장)</li> </ul> </li> </ul>
6.05.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여맹예술선동 대원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6/14)</li> <li>제6차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폐막</li> </ul>	

일자	대내	대남·대외
6.06.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소년단 창립(6.6) 73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 연합단체대회(금수산태양궁전 광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러시아연방 원동 및 북극발전상 방북(~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알렉산드르 고즐로브(극동·북극개발부 장관)</li> <li>- 박봉주(부위원장) 접견(6/7)</li> <li>- 김재룡(내각총리) 담화(6/7)</li> </ul> </li> <li>[러시아] '김정일동지 당중앙위원회 사업 55돌 기념' 북한 도서기증식 개최(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렉세이 꼬지쯔끼(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 위원장)</li> </ul> </li> </ul>
6.07.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베트남 공산당 중앙이론이사회 대표단 방북(5/3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따 응옥 띠(부위원장)</li> <li>- 리수용(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5)</li> </ul> </li> <li>[러시아]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 담화 발표</li> </ul>
6.08.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이지리아] 북한 정부대표단, 나이지리아 '민주주의의 날' 경축행사 참석 위해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방문(~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리룡남(내각부총리)</li> <li>- 아리스토폴로 이스투리스(베네수엘라 부대통령 부통령) 접견 및 담화(6/12)</li> </ul> </li> <li>[일본]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결성 60돌 기념 모임 개최(도쿄 총련중앙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진구(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김성훈(선전문화국 국장), 윤충신(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참석</li> </ul> </li> </ul>
6.09.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제리]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 담화 발표</li> </ul>
6.11.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벽성군 옥정협동농장, 강령군 내동협동농장, 웅진군 선봉협동농장</li> </ul> </li> <li>'온실남새부문 과학기술토론회-2019' 개최(~6/26,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태덕(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김광옥(농업연구원 원장) 등 참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1돐 즈음),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A/73/894-S/2019/466호'로 배포</li> </ul>
6.12.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남] 김정은 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위임함에 따라 김여정(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에서 남측에 전달</li> <li>[시리아] '6.12조미공동성명채택 1돐' 기념 담화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마드 샤으반 아주즈(시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위원장)</li> </ul> </li> </ul>
6.13.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재일동포조국방문단(~6/20) 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조천기(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li> </ul> </li> <li>[일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방북(~6/27)</li> </ul>

일자	대내	대남·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조명호(교토조선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웅(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li> <li>• [베트남] 베트남 정부 기증 식량 도착(남포항)</li> </ul>
6.14.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 현지지도 20돌 기념보고회(~6/14, 자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로씨야정교회대표단 방북(~6/19)</li> <li>- 단장: 페오판(대주교)</li> <li>• [중국] 북한 문화전람회 개최(~6/20)</li> </ul>
6.15.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15공동선언발표 19돌 기념 담화 발표</li> <li>- 박수철(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li> </ul>	
6.17.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li> <li>-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li> <li>• 평양국제건강 및 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최(~6/21, 과학기술전당)</li> <li>- 최정호(과학기술전당 총장), 김정수(국가과학 기술위원회 부위원장), 김형훈(보건성 부상) 참석</li> </ul>	
6.18.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일동지 당중앙위원회 사업 55돌 기념' 중앙 미술전시회 개막(조선미술박물관)</li> <li>- 개최사: 박춘남(문화상)</li> <li>• 김정일 노작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에 제시된 사상이론 체득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개최(청년중앙회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수엘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6.12조미공동 성명채택 1돐' 기념 베네수엘라 까라보보주 나구 아나구아시 최고훈장 수여</li> <li>• [일본] 총련 지바현상공회대표단 방북(~6/22)</li> <li>- 단장: 류일수(부회장)</li> <li>• [중국] 시진핑 주석, 방북에 앞서 기고문을 통해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려 한다'며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 표명</li> </ul>
6.19.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조선기자동맹대표단 대표단 방중(~6/28)</li> <li>- 단장: 차승수(기자동맹 위원장)</li> </ul>
6.20.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김정일, 인민경제대학 현지지도(6.21.)' 30돌 기념보고회 개최</li> <li>- 리학성(대학 초급당위원장) 등 참가</li> <li>• 전국어린이바둑경기 및 전국바둑애호가경기 개최(~6/27, 태권도전당)</li> <li>- 평양시가 각각 종합1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진핑(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 인민공화국 주석) 방북(~6/21)</li> <li>- 평양국제비행장 환영식(6/20)</li> <li>- 금수산태양궁전 광장 환영식(6/20)</li> <li>- 북중 정상회담 개최(6/20 오후)</li> <li>-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 관람(6/20 저녁)</li> <li>- 시진핑 주석·평리위안 여사 환영연회 개최(6/20 저녁)</li> <li>- 시진핑 주석 부부와 기념촬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6/20 저녁)</li> <li>- 김정은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숙소 방문(정원 산책) 및 오찬(금수산영빈관 장미원)(6/21)</li> <li>-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국제비행장 환송(6/21)</li> <li>• [스위스] 북한 올림픽위원회 참석 위해 스위스 방문(올림픽위원회대표단)(~6/27)</li> <li>- 단장: 김일국(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체육상)</li> </ul>

일자	대내	대남·대외
6.21.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분구 조직</li> <li>- 대의원 선거(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리아] 정부대표단 방북(~6/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왈리드 알 무알림(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li> <li>- 리용호(외무상)와 이주민상 회담 개최 및 양해문 조인(6/24)</li> <li>- 리수용(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6/25)</li> <li>-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담화(6/25)</li> </ul> </li> </ul>
6.22.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예술협회 음악무용종합공연(평안남도 평성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북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 참석 위해 방러(~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임천일(외무성 부상)</li> <li>- 이고리 모르쿨로브(러시아 외무성 부상)과의 회담(6/24)</li> </ul> </li> <li>• [싱가포르] 정보통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장관급)회의, 지능국가혁신주간 행사 참석 위해 싱가포르 방문(~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광철(체신상)</li> </ul> </li> </ul>
6.23.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 발송</li> </ul>
6.24.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직할시)·시(구역)·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분구 선거위원회 조직</li> <li>- 대의원 선거(7/1)</li> <li>•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미래과학기술원 준공식 개최</li> <li>- 김능오(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전광호(내각부 총리), 최동명(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교육위원회 위원장) 참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바] 국가관광총국대표단 쿠바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조성걸(국가관광총국 총국장)</li> </ul> </li> <li>• [라오스] 라오스직업연맹 대표단 방북(~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아리 원노분탐(라오스직업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li> </ul> </li> <li>• [영국] 국경절 기념 연회 개최(주북 영국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 콜린 제임스 크룩스(영국특명전권대사)</li> </ul> </li> </ul>
6.25.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조선우표 집중 전시(~7/4, 조선우표전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방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윤성진(오사카 조선고급학교장)</li> </ul> </li> <li>• [중국] 체육일군친선대표단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정수(체육성 제1부상)</li> </ul> </li> </ul>
6.26.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 지역) 경기 종료</li> <li>- '4.25팀' 지역 간 준결승 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대표단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완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li> <li>- 김완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양전당(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회담 개최</li> <li>- 왕양(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내방</li> <li>- 지재룡(중국 주재 북한특명전권대사), 하보룡(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겸 비서장) 등의 관계일꾼 참가</li> </ul> </li> </ul>
6.27.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위원장 평안북도 여러 단위 현지도(2018.6. 신도군·신의주화장품공장 등) 1돌 기념보고회</li> <li>- 문경덕(평안북도 당 위원장)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 '제30차 여름철 세계대학생체육경기 대회' 참석 위해 이탈리아 방문(북한 대학생체육협회 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조철(조선대학생체육협회 위원장·교육위원회 부위원장)</li> </ul> </li> </ul>

일자	대내	대남·대외
6.28.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인민문화궁전)</li> <li>- 최룡해(국무위 제1부위원장, 보고), 박봉주(국무위 부위원장), 김재룡(국무위 위원), 리만건,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취(사회), 박태덕, 김영철, 리용호, 태형철,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김덕훈, 리용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조춘룡, 최선희, 김수길, 노광철 등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표단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김완수 의장</li> <li>-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김완수)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양전당) 사이의 회담</li> <li>-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왕양) 내방</li> </ul> </li> <li>• [러시아] '의회제도발전에 관한 제2차 국제연단' 참석 위해 방러(최고인민회의 대표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박금희(최고인민회의 부의장)</li> </ul> </li> <li>• [방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일꾼대표단 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홍서현(총장)</li> </ul> </li> </ul>
6.29.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 '동아시아지역 적십자단체 책임일꾼회의·몽골 적십자사 창립 80주년 행사' 참석 위해 몽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 백용호(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 위원장)</li> </ul> </li> </ul>
6.30.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남북미 정상상봉 및 북미 단독 환담·회담 진행 (판문점)</li> </ul>

##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 〈대내〉

#### ■ 김정은 위원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2.8기계종합공장·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평남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6/1~2)

- 6월 1~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함.
  - 조용원, 유진, 김용수, 현송월, 김창선, 마원춘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간부들이 동행
  - 김정은 위원장은 각 시설의 운영 실태를 보고받았으며,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관련 당의 지침을 강조

#### ■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조선 (노동신문, 6/2)

- 6월 2일자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자력갱생과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적대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혁명정신을 발휘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인민들의 기상에 대해 세계의 찬탄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다고 주장
  -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조국이 경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를 따라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

#### ■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노동신문, 6/7)

- 6월 7일자 노동신문은 국제사회의 어두운 면모와 비교되는 북한의 아동복지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무력충돌로 인한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어린이가 12억 명 이상,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억 2,300만 명 이상, 아동노동을 강요당하는 어린이가 10명 당 1명꼴로 나타나는 등 국제사회의 어린이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비롯하여 국가의 다양한 혜택 하에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
  - 평양에서 개최 중인 조선소년단창립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은 모두 평범한 근로인민의 자녀이며, “이런 꿈같은 현실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주장

### ■ 북한 여러 지역에서 가물현상 지속 (조선중앙통신, 6/14)

- 6월 1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여러 지역에서 가물현상이 지속된다는 소식을 보도함.
  -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는 매우 심하였으며, 특히 황주·재령을 비롯한 재령강 유역과 리원·명간·경성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약간 내리는 현상만 지속
  - 앞으로 6월 하순의 강수량은 서해안 중부이남 지역에서 평년(33.3mm)의 70~80%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어왔다 (조선중앙통신, 6/23)

- 6월 2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김정은 동지께 친서를 보내왔다는 소식을 보도함.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

## 〈대외〉

### ■ 평화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도발행위 (노동신문, 6/7)

- 6월 7일자 노동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남한에서 “평화에 역행하는 불안요소”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을지태극연습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부와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을 연계한 것이라고 소개
  - 한국 당국은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대규모적인 재난과 위기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연습의 도발적 정체와 기저에 깔린 대결적 속내를 숨길 수 없다고 비판
  - 북한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겉으로는 남북선언 이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부에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다 (노동신문, 6/13)

- 6월 13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조의문과 조화는 위임에 따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6월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전달
  - 노동신문은 아울러 “리희호여사의 유가족들에게” 제하의 김정은 위원장의 추모문을 게재
  - 김정은 위원장은 추모문에서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남북관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언급

### ■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노동신문, 6/19)

- 6월 19일자 노동신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북에 앞서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려 한다’며 ‘지역의

항구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

-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 친선적인 내왕과 실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 등의 내용 언급

### ■ '시진핑 中 국가주석 北 국민방문(6.20~21) (조선중앙통신, 6/21)

- 6월 2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6월 20일 오후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조중외교관계설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시진핑 동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 이번 방문이 조중 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 계기로 되며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와 조선의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 무력기관의 간부들 그리고 평양시의 각 계층 군중들이 따듯이 맞이해주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준 데 대하여 사의 표시
  - 조중 두 당과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며 고위급 왕래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 데 대하여 합의
  - 조중 정상은 조선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 지금과 같이 국제 및 지역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
  - 북측: 최룡해·김재룡·리용호·리수용·김수길, 중국측: 정설상·양결지·왕의·하립봉·송도·종산·묘화 등 배석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6/23)

- 6월 2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6.23, '현재 북한 경제의 80% 이상이 제재를 받고 있고 이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을 언급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함.

- “폼페이오 말대로 현재 미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의 80% 이상에 미치고 있다면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것은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채택된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조선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비난
- 조미 수뇌 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
-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하며,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언급
- 우리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굴복할 나라가 아니며 미국이 치고 싶으면 치고, 말고 싶으면 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
-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생존권을 짓밟으려 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 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길 것이라고 강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권정근의 담화

(조선중앙통신, 6/27)

- 6월 2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권정근의 담화를 보도함.
  -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
  - 이와 관련, 조미대화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강조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6/29)

- 6월 29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6.29~30) 중 김정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한 공식제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된다면 두 수뇌분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 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담화 발표

■ **김정은 위원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역사적인 상봉 및 북·미 단독 환담·회담 진행**  
(조선중앙방송·조선중앙통신, 7/1)

- 7월 1일자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다고 보도함.
  - 최고영도자 동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맞이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
  -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분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했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림
  -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긴밀히 연계해나가며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재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는 회담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
  - 북한 리용호(외무상), 미국 폼페이오(국무장관) 참석
  - 김정은 위원장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단 하루 만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는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며 부닥치는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신비스러운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조미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굳게 닫혀 있던 판문점 분단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역사를 뛰어넘을 세기적인 만남을 이룩한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응단은 뿌리 깊은 적대국가로 반복질시해온 두 나라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기록

※ 일러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